북-중-소 삼각관계가 6·25전쟁 과정과 전후 북한외교 행태에 미친 영향

기밀해제문서를 중심으로

캐스린 웨더스비(제1저자)
존스홉킨스대학교 전임강사,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객원교수, 러시아사 전공
kathrynweathersby@gmail.com

강규형(교신저자)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 부교수, 현대사 전공
gkahng@mju.ac.kr

Ⅰ. 머리말
Ⅱ. 해방 이후 한반도 북부에서의 소련의 영향력, 1945-1950
Ⅲ. 전쟁의 결정과 북한정부
Ⅳ. 중국의 개입, 소련의 '배신', 그리고 북한의 굴욕
Ⅴ. 휴전협상과 북한의 황폐화, 그리고 종전 후 외부의 원조
Ⅵ. 맺음말

이 글은 2010년 제1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국제학술회의(2010. 6. 2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I. 머리말

6·25전쟁의 유산 중 국제관계에 가장 지속적인 영향을 준 것에 순위를 매긴다면, 동지든 적이든 가리지 않고 다른 국가에 대해 이미 상당한 불신과 호전성을 보여준 북한의 태도를 더 강화시킨 점일 것이다. 종전 이후 냉전의 전 기간 동안 평양의 강력한 후원자인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북한의 행동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두려워했지만, 북한의 지도자인 김일성을 제재할 능력은 제한적이었다. 김일성은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동료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획득했다. 냉전의 종식이 평양의 6·25전쟁 동맹국들로 하여금 남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도록 하였지만, 북한은 오히려 엄격한 이데올로기와 고립에 더 집착하게 됐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명백한 호전성과 폐쇄적 태도가 6·25전쟁 기간 중 강화되고 견고해졌는데, 이는 특히 평양이 소련과 중국이라는 보호자들에게 의지하다가 느낀 굴욕감과 배신감의 결과라는 것을 논의하려 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폭격 때문에 물리적 파괴가 극심했고, 전쟁 중 많은 북한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전쟁 이후에도 남한에 미국 군대가 계속 주둔한 사실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적대심을 심화시키고 연장시켰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소련의 붕괴 이전까지는 북한과 6·25전쟁 동안의 공산주의 동맹국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

냉전이 종식된 후 열람이 가능해진 소련과 중국의 기록보관소 기록에 의거해서, 이 논문은 북한이 깊고 지속적인 불신과 분노를 야기한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안 강력한 후원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전쟁 직후 생존을 위해 의존하던 국가들이 사실상 기본적인 안보 요구를 보장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조차 무너지면서, 평양은 공산동맹국에게 안보문제와 공산주의 동료로서의 책임감을 강요하며 그들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이끌어내는 한편, 폐쇄성과 호전성을 통해 동지와 적 모두를 경계하면서 국가를 강화하고자 시도하였다.

초기에 북한이 맺고 있던 소련과 중국과의 광범위하면서도 복잡한 관계에 관한 연구는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복잡한 현상의 중요하면서도 다양한 면모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

다. 이 논문에서는 전시에 북한이 소련과 중국과 맺은 관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여섯 가지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즉, 해방 이후 6·25전쟁 이전까지 소련이 북한에 대해 가졌던 압도적인 영향력, 남한에 군사공격을 감행할 것을 승인받는 과정, 1950년 10월 패색이 짙었던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반응, 중국의 참전에 따른 주권의 상실, 장기적인 휴전협상 중에 소련과 중국에게 우선권이 주어진 종속 상황, 한국에서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했다며 비난하던 선동에 대해 소련이 취한 돌변한 태도가 그것이다.

이 논문의 다른 주된 목적은 전시에 맺었던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의 결과로서 한국 공산주의 지도자가 갖게 된 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북한의 시각을 통해 역사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이야기를 평양의 동맹국들의 기록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기록을 학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 기록들이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II. 해방 이후 한반도 북부에서의 소련의 영향력, 1945-1950

1945년 8월 일본 군대의 항복을 받아들일 목적으로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이 분리 점령한다는 결정은 연합국들이 전후 전략적 이득을 얻기 위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었다. 모스크바나 워싱턴 모두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 중 어떤 한국의 망명정부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운명적인 결정에 있어 연합국과 협의할 수 있는 한국의 지도자는 없었다. 공동점령 후 4개월이 지난 1945년 12월에 소련과 미국은 여전히 한국인을 배제한 채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회담을 계속해 신탁통치에 합의했는데, 이 결정에 사실상 모든 한국인들이 매우 분개했고 반대했다.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신탁통치는 한국 정치조직들의 협의를 통해 신생 국가의 정부를 탄생시키려는 의도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한국정부의 정치적인 틀에 대해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구조를 창안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1945년 8월의 성급한 분단이 1948년 별개의 국가 탄생으로 굳어지게 되었고, 양 분단국가의 정치지도부는 각각의 주둔국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후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종속되고 말았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성립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달성 과업을 완수하려는 내부 상황의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연립정부 설립의 희망이 좌절되자 그들은 목적달성을 위해 군사적 행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군사적 행동, 즉 만주에서 일본 점령에 대항해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연합해 실행했던 게릴라 전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 대신 새로 창설된 인민군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선을 침범하는 전통적인 군사도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공산권 측 결정에 관한 방대한 양의 문서를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입수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10여 년이 넘게 학자들이 이 문서들을 분석해 오고 있다.[1] 이러한 작업은 우드로 윌슨 센터 산하 냉전 국제사 프로젝트(Th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와 캐스린 웨더스비(Kathryn Weathersby) 박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2] 또한 1994년 6월 2일 크렘린궁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마친 후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보관해온 6·25 관련 문서 사본을 전달했다. '옐친 문서(Yeltsin Documents)'라 불리는 이 문서는 현재 서울 외교사료관에 보관 중이다.[3]

---

1)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States) 소장 북한노획문서는 그 이전에도 분석 가능했으나, 이 문서들은 UN군이 1950년 10월 평양에 입성하기 전에 북한 당국과 소련 고문관들이 파기하거나 빼돌리지 않은 문서들이었기에 최상위층의 정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결여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자료는 흐루쇼프의 비밀 회고록이었다. 흐루쇼프는 권력에서 밀려난 후 비밀리에 회고록을 구술했는데, 여기서 비교적 상세하게 북한과 6·25전쟁에 대한 증언을 남겼다. Khrushchev, Nikita, *Khrushchev Remembers: The Glasnost Tapes*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90), pp. 144-147 참고.

2) 당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수였던 웨더스비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러시아 외무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방부가 소장하고 있던 한국에 관한 방대한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냉전 국제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모스크바의 대통령문서보관소에 있던 약 2,000페이지 상당의 한국에 관해 최고위급이 내린 결정에 관한 기록을 입수했다. 이러한 기록에 관해서 보다 더 상세한 논문을 보기 원한다면 Weathersby, Kathryn, "The Soviet Role in the Korean War: The State of Historical Knowledge," William Stueck(ed.), *The Korean War in World History*(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4), pp. 61-92 참고.

3) 이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웨더스비가 이전에 발굴한 자료들과 일치한다.
외교사료관에 대해서는 http://cafe.naver.com/diplomaticarchives 참고.

한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김일성도 한반도의 분단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가 동의하고 지지하지 않는 한 목적달성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었고, 이것은 서울의 이승만 정부도 마찬가지였다.[4] 한국에 관한 러시아의 기록문서가 공개되기 전에는 일부 학자들이 북한이 자력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5] 그러나 공산주의 붕괴 이후 기밀에서 해제됨에 따라 학자들이 볼 수 있게 된 문서에는 전혀 다르게 기술되어 있었다.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이 문서에는 1945년에서 1950년까지 소련이 한국과 맺은 관계가 기록되어 있다.

한반도 인구의 3분의 2와 농경지 대부분이 남한에 있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피폐해졌으며, 예전에 일본과 중국과 맺고 있던 경제적 유대는 단절된 상태에서 산악지형 위주인 북한은 소련의 대대적인 경제원조 없이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지식인과 지주계급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적대감으로 인해 대다수의 지식인과 기술 인력이 남한으로 내려가버려 북한은 심각한 두뇌 유출 상황을 초래했다. 북한은 소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홍콩과 만주의 두 곳과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는 것 외에는 소련만이 북한에게 있어 유일한 물품 공급원이자 북한 물품을 수출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북한은 사실상 경제와 행정 모든 영역에 걸쳐 소련에게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6] 커밍스는 중국이 항상 기꺼이 원조해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소련과 중국의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 양국의 접촉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7] 게다가

---

4) 존 루이스 개디스 저, 강규형·정철 옮김,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에코리브르, 2010), 64-66쪽 참고.

5) 브루스 커밍스가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II*에서 내린 해석이 가장 유명하다. MacDonald, Callum A., *Korea: The War Before Vietnam*(London: Macmillan, 1986)과 Kim, Gye-Dong, "Who Invented the Korean War?" James Cotton and Ian Neary(eds.), *The Korean War in History*(Manchester, U.K.: University of Manchester Press, 1989)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

6) 러시아 외무부의 한국에 관한 기록은 철도에서 금융, 보건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김일성이 그의 새 행정부를 위해서 기술적 자문을 구한 요청으로 가득차 있다. Weathersby, Kathryn, "Making Foreign Policy under Stalin: The Case of Korea," Niels Erik Rosenfeldt, Bent Jensen, and Erik Kulavig(eds.), *Mechanisms of Power in the Soviet Union*(London and New York: Macmillan Press/St. Martin's Press, 1993), pp. 224-240 참고.

7) 이러한 점은 Goncharov, Sergei N.,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중국 공산당도 초기에는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련의 도움이 필요했었다.[8]

북한 지도부가 한국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그 목표를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명백히 소련의 광범위한 군사적인 원조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그러한 군사행동은 심각한 국제적 반발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기에 남한에 대한 공격은 모스크바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 김일성의 지도부가 북한정부 설립으로 어느 정도 자율권을 획득하고 뒤이어 소련 점령군이 철수를 했다 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소련의 후원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김일성은 모스크바에 북한 사람들이 소련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정부기관뿐 아니라 경제·사회기구의 모든 분야에서 소련의 자문에 의존하였다.[9] 중국에서 수만 명의 경험 많은 북한 군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새로운 인민군에게 전문기술을 전수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내전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현대적인 군대를 양성하고 공급하는 일은 소련만이 할 수 있었다.

소련에 대한 이런 물리적 의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세계 공산주의자들처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소련을 혁명의 조국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공산당 용어로) 소련은 당시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로서 세계적인 혁명투쟁의 보루이며 영도자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신생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의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구조를 창설하고자 할 때 소련의 지도에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10]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 134에서 강조되고 있다.

8) 초기 중·소 동맹에 관한 내용은 Westad, Odd Arne(ed.), *Brothers in Arms: The Rise and Fall of the Sino-Soviet Alliance*(Washington and Stanford: Woodrow Wilson Center Press an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에서 볼 수 있다.

9) 러시아연방 외교정책기록보관소의 파일, 「record group Referentura po Koree for 1945-1949」에는 소련의 다양한 교육기관에 학생을 보내고자 하는 한국의 요청에 관해 모스크바와 평양이 주고받은 많은 양의 서신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정부에게 소련이 제공한 원조에 관한 내용은 Lankov, Andrei, *From Stalin to Kim Il Su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1950*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pp. 1-48 참고.

10) 러시아 정치-사회 역사 기록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소련 공산당 국제부의 파일에는 해당 분야의 합당한 절차를 배우게 하고자 새로 임명된 북한 지역 및 당 관리들을

이런 모든 이유들로 인해, 새로운 국가원수로 취임한 김일성은 1949년 소련의 지도자 요시프 스탈린(Joseph Stalin)에게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시기적절하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할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 문제를 1949년 3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북한과 소련 사이의 최초의 조약을 결정하기 위한 회담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스탈린은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1945년 한반도의 분단에 관해 미국과 맺은 협정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김일성의 요구를 거절했다. 더구나 소련의 지도자는 미군이 여전히 남한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그 문제는 아직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보았다.[11]

1949년 여름에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김일성은 남한이 북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자신의 요청을 고려해줄 것을 스탈린에게 요구했다. 스탈린은 이번에는 그 요청에 대해 기꺼이 토론했는데, 그 이유는 미군의 철수가 남한으로 하여금 북한을 공격하게 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며, 그 결과 일본의 소련 공격을 제어하는 중요한 완충장치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를 거듭한 끝에, 9월 소련의 지도자는 상황이 여전히 남한을 공격하기에 좋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북한의 전력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군사작전은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장기전"은 미국이 "중국에서의 경우보다 더 과감히" 개입해 전반적으로 소련에 맞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므로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남한에 대한 공격이 "적절한" 것이라 여겼다. 주목해야 할 점은 소련 지도부의 최고 관심사는 한국을 북한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아니었고, 혹시라도 소련에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했다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소련 지도부는 북한에게 무장봉기를 통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남한에서의 빨치산운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12]

모스크바에 여러 번 파견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11) Conversation between Stalin and the governmental delegation of the DPRK headed by the Chairma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DPRK Kim Il Sung, 7 March 1949. Bajanov Evgenii P. and Natalia Bajanov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unpublished manuscript based on records from the Presidential Archive of Russia*에서 재인용.

12) Ciphered telegram from [Soviet Ambassador to the DPRK] Shtykov to [Soviet Foreign

III. 전쟁의 결정과 북한정부

1950년 1월, 3개월 전에 이루어진 중화인민공화국의 창설에 고무되어 김일성은 평양 주재 소련대사 테렌티 슈티코프(Terentii F. Shtykov)[13]에게, 한반도에서의 혁명을 완수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의 위업에 비견할 일을 자신도 성취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스탈린을 만나고 싶다고 간청했다. 김일성은, "나는 공산주의자, 즉 엄격하게 규율에 따르는 사람이므로 나에게 스탈린 동지의 명령은 법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공격을 개시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14] 1월 30일 스탈린은 드디어 김일성에게 "나는 김일성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남한과 관련해 김일성이 도모하고자 하는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왔다. 스탈린은 여전히 남한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소련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기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는 잘 계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15]

김일성과 북한 외무장관 박헌영은 3월 하순 소련 군사고문들과 공격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스탈린은 미국이 아시아 본토에서 군사개입을 배제한다는 새로운 극동정책을 채택했다는 정보국

Minister] Vyshinsky, 3 September 1949, *Archive of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이하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4, Papka 11, Listy 136-138; Ciphered telegram from [First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Gromyko to [Charge d'affairs of the Soviet embassy in Pyongyang] Tunkin, 11 September 1949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 45.; Ciphered telegram from Tunkin to the Soviet Foreign Ministry (in reply to telegram of 11 September), 14 September 1949,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y 75-77. 이 문서들의 전문을 보기 원하면 Weathersby, K.,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vol.* 5 (Spring 1995), pp. 1-9를 참고. www.cwihp.org에서도 볼 수 있다.

13) '스티코프', '쉬티코프'로도 표기됨.

14)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y 87-91. 문서 전체의 영어 번역판은 Weathersby,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 pp. 1-9를 참고. www.cwihp.org에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15) Ciphered Telegram from Shtykov to Vyshinsky, 19 January 1950,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y 87-91; Ciphered telegram from Stalin to Shtykov, 30 January 1950,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 92. 이 문서들의 전문을 보기 원하면 Weathersby,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 pp. 1-9를 참고. www.cwihp.org에서도 볼 수 있다.

의 보고를 주된 근거로 승인을 해주었다. 이런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소련의 지도자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 해도 미국이 남한을 위하여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스탈린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이제는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의 변화는 1949년 10월 중국공산당의 승리로 중국 군대가 필요한 경우 한반도에 참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에서 공산당의 승리를 막지 못한 미국이 훨씬 득이 적은 한국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또 다른 "국제정세의 변화"는 전 달에 체결된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방위동맹으로 인해 미국이 "아시아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도전에 좀 더 소극적이게" 만들었다고 스탈린은 생각했다.[16]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스탈린은 "미국에서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며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스탈린의 발언은 1949년 12월 말경 채택한 NSC 48이라 불리는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소련이 워싱턴에 심어놓은 고위급 영국인 스파이 도널드 매클린(Donald McLean)을 통해 그 정책을 숙지하고 있었다. 어쨌든 1월 12일 국무부장관 딘 애치슨(Dean Acheson)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의 연설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발언은 NSC 48의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과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의 군대해산으로 인해 가동할 수 있는 군대동원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방위선을 일본과 아시아 본토, 그리고 필리핀과 아시아 본토 사이의 동쪽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방위선(defensive perimeter)"에서 한반도를 제외시켜버렸다.

스탈린은 워싱턴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정책이 그 지역에 힘의 공백을

16) Report on Kim Il Sung's visit to the USSR, March 30-April 25, 1950. Prepared by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All-Union Communist Party (Bolshevik). Bajanov, Evgenii P. and Natalia Bajanov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unpublished manuscript based on records from the Presidential Archive of Russia*에서 재인용. 이 문서들의 전문을 보려면 K. W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Working Paper no. 3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ashington, D.C., July 2002). pp. 9-12 참고. www.cwihp.org에서도 볼 수 있다.

만들었다고 보았고, 그 공백을 매우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였다. 1950년 1월 첫 주에 스탈린은 동아시아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전부 바꿨다. 1월 6일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연락해 동맹을 맺자고 제의했다. 마오쩌둥이 지난 12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스탈린은 이 동맹에 대해 주저했었다. 이러한 메시지는 1월 12일 국무부장관 딘 애치슨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하기 이전에 마오쩌둥에게 전달됐다.[17]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스탈린이 1월 6일 이전에 매클린으로부터 NSC 48의 실체에 관해 들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스탈린은 소련이 현재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에게 거의 패할 뻔했던 소련의 신중한 지도자는 미국과의 전쟁에 소련이 말려들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에 스탈린은 소련이 어떠한 경우에도 원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 만약 김일성이 증원부대가 필요하다면 중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18] 원칙적으로 전쟁을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소련과 공산 측이 이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길 원했다. 스탈린은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해방전쟁의 모든 득과 실을 다시 한 번 따져보시오. 무엇보다 먼저 미국이 개입할 것 같소, 아닐 것 같소?"라고 물었다. 둘째로, 북한이

---

17) Record of the Conversation between Comrade I. V. Stalin and Chairman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o Zedong on 16 December 1949. *Archiv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이하 *APRF*], Fond 45, Opis 1, Delo 329, Listy 9-17; Record of Conversation between Comrade I. V. Stalin and Chairman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o Zedong on 22 January 1950, *APRF*, Fond 45, Opis 1, Delo 329, Listy 29-38. 이 문서들의 전문은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vol.* 6/7, pp. 5-9 참고. www.cwihp.org에서도 볼 수 있다.
1945년 얄타회담에서 전시의 동맹국들과 맺은 협약으로 동아시아에서 막대한 영토 이익을 얻은 소련은 이미 중국 국민당과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스탈린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새로운 동맹으로 인해 그 조약이 파기되면 미국에게 얄타협정을 개정할 빌미를 주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NSC 48에 대해 알게 되면서 스탈린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탈린은 베이징(중공)과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는 남한을 침략할 것을 승인해주었고 베트남의 호치민 정부를 인정했으며, 일본 공산당에게도 초기의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과감한 정책을 택하라고 지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18) 관련 기록은 W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pp. 10-11 참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중국의 원군 파병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었기에 스탈린은 "해방전쟁은 중국 지도자(마오쩌둥)가 승인을 해야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했다.[19]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자신 있게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미국은 이제 북한 뒤에서 소련과 중국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큰 전쟁이라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일성은 또한 스탈린에게 "중국은 한반도를 해방시키려는 우리의 의지를 항상 지지해왔고 중국혁명이 완료되면 우릴 도와줄 것이며 필요하다면 군대도 파병할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지도자는 중국 동지들에게 원조를 요청하길 꺼리며 "우리는 한반도를 우리의 힘으로 통일하고 싶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20]

스탈린은 결국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북한군의 전쟁준비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무기와 군수물자를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스탈린은 3단계의 공격방침을 제시했다. 첫째, 38도선 근처에 병력을 집중할 것. 둘째, 북한이 통일의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것. 셋째, 그 제안들을 거절당하면 공격을 개시할 것. 스탈린은 옹진반도에서 남한 군대의 교전을 유인해 "전쟁 발발을 위장하자."는 김일성의 제안에 동의했다. 남한이 옹진에 반격을 가해오면 북한은 전선을 확대할 구실이 생길 것이다. 스탈린은 "전쟁은 신속하고 빨라야 한다. 남한과 미국이 정신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어선 안 된다. 그들이 강력한 저항을 하거나 국제적인 지원을 얻으려고 움직일 시간을 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21] 스탈린은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소련이 전쟁에 직접 참여할 것은 기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섣부르게 전쟁을 하길 원치 않았다. 결론적으로 베이징에서 전쟁을 승인해줄 것을 예상하고 소련과 북한의 지도자는 "1950년 여름에 북한군의 총동원령을 내릴 것이며 그때 북한의 각료는 소련의 충고와

---

19) Report on Kim Il Sung's visit to the USSR, March 30-April 25, 1950. Prepared by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All-Union Communist Party(Bolshevik). 공산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도와줄 의지가 실제로 있었다. Gaddis, John Lewis,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 66-70, pp. 158-161 참고.

20) *W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pp. 9-10.

21) *Ibid.*, p. 10.

지도를 받아 구체적인 공세 계획을 확립"하는 데 동의했다.[22]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군사행동을 진행하기 전에 마오쩌둥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기분이 상한 김일성은 5월 13일 베이징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마오쩌둥에게 스탈린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자신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였다. 마오쩌둥은 깜짝 놀라 스탈린에게 이 소식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전문을 보냈다. 스탈린으로부터 소련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승인했다는 답을 들은 뒤 마오쩌둥은 계획에 동의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결국 5월 15일 남한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이 다시 개입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대만에 남아 있는 국민당을 물리치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원칙적으로 북한의 동지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단 대만을 해방시키면 북한이 남한을 해방시키도록 도와주려 했지만, 한반도에서의 해방이 먼저 결정되었으니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겠다." 더구나 마오쩌둥은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적 발전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동맹을 맺은 직후라 이미 스탈린이 승인한 계획에 반대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전쟁의 승인과 중국의 원조를 약속했으나 장기전은 피하라고 경고했다.[23] 베이징 주재 소련대사에게 보낸 김일성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소련은 38도 경계선에 관해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어 참전이 용이하지 않지만 중국은 그럴 의무가 없으니 북한을 돕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24]

5월 중순 김일성이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전쟁준비는 급속도로 진행됐다. 한편, 스탈린은 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군사원조를 포함한 미국의 남한에 대한 의무이행과 미국 고위관리들의 서울방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한편 슈티코프 대사는 소련이 보급해주기로 약속한 무기와 장비 대부분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5월 29일 스탈린에게 보고했다. 김일성은 새로 창설된 인민군을 점검하고 6월 말경에는 전쟁준비가 완료될

22) *Ibid.*, pp. 10-11.

23) *Ibid.*

24) Telegram from [Soviet Ambassador to Beijing] Roshchin to Stalin, 16 May 1950. Bajanov, Evgenii P, and Natalia Bajanov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unpublished manuscript based on records from the Presidential Archive of Russia*에서 재인용. 이 문서들의 전문은 www.cwihp.org에서도 볼 수 있다.

것으로 기대했다. 독·소전쟁의 영웅으로 북한의 전쟁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급파된 소련의 A. B. 바실리예프(A. B. Vasiliev) 장군과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김일성이 승인한 전체적인 전쟁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준비했다.[25]

6월 12일 인민군은 38도선에서 10~15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슈티코프는 다음 날 스탈린에게 "사단장들, 각 사단 참모와 포병단장들이 특별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각 편대에 세분되고 구체적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예비준비를 계속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26] 6월 15일에는 공격개시 준비가 완료됐고, 다음 날 슈티코프는 6월 25일 새벽에 침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스탈린에게 보고했다. "첫 단계로, 인민군의 편대와 부대가 옹진반도에서 국지전으로 시작해서 다음에 한반도 서쪽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전면전을 실시한다. 두 번째 단계는, 서울을 반드시 점령하고 한강을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동시에 동쪽 전선에서 북한 군대는 춘천과 강릉을 점령한다. 그래서 남한 군대의 주력이 서울에서 포위되어 궤멸돼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 잔당 세력을 일소하고 주요 인구 거점과 항구를 장악하여 남한의 나머지 지역을 해방시키는 것이다."[27]

침공 날짜가 다가오면서, 스탈린은 미국이 개입할지도 모른다고 계속 걱정하고 있었다. 비록 6월 20일에 슈티코프가 인민군이 남해상에서 육해군 합동상륙을 위해 소련군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을 승인했지만, 스탈린은 "적에게 미국이 개입할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련측 군인이 승선하는 것은 거절했다.[28] 하지만 동시에 스탈린은 미국의 참전 가능성을 아주 높게 만드는 결정을 내렸다. 6월 21일 스탈린은 슈티코프를 통해 김일성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북한정보국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남한이 인민군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옹진 쪽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일성은 원래의 공격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총공세를 시작하기 전 전초전으로서의 옹진반도 국지전 대신에 김일성은 25일 모든 전선에서의 전면전

25) Telegram from Shtykov to Stalin, 29 May 1950, *Ibid.*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50쪽 참고.
26) Telegram from Shtykov to Stalin, 13 June 1950, *Ibid.*
27) Telegram from Shtykov to Stalin, 16 June 1950, *Ibid.*
28) Telegram from Stalin to Shtykov, 21 June 1950, *Ibid.*

을 제안했다."[29] 같은 날 스탈린은 "모든 전선의 즉각적인 진격"이라는 김일성의 제안에 동의했다.[30] 적에게 계획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베이징은 구체적인 준비상황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 중국의 지도자는 공격이 개시된 것을 해외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 그 때문에 베이징에서는 전쟁 개시에 관해 소외됐다는 분노가 생겨나기도 했다.[31]

마지막 순간에 작전계획이 변경된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만 볼 때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던 국경에서 갑자기 대량의 탱크로 밀어붙이는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감안할 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미국과 모든 서방 국가의 지도자들은 즉각적으로 북한의 전격적인 남한침공을 바로 5년 전에 끝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 것이다. 그들은 6월 25일의 침공을 1930년대 나치 독일의 침략과 비교했던 것이다. 나치 독일의 경우처럼 만약 여기서 소련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보았고, UN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32] 그 결과 미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재빠르게 15개국이 참여한 동맹을 결성했고, 그들은 UN의 깃발 아래 싸우게 되었다. 북한과 소련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내린 최종적인 결정은 이렇게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결과, 즉 미국의 참전을 가져왔으며, 그로 인해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전격적인 승리라는 그들의 희망은 사라지게 됐다.

---

29) Telegram from Shtykov to Stalin, 21 June 1950, *Ibid.*

30) Telegram from Stalin to Shtykov, 21 June 1950, *Ibid.*
아쉽게도 한국사학계와 역사교과서는 아직 이러한 연구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성출판사가 출간한 근현대사 교과서는 6·25 이전의 작은 분쟁과 무력충돌이 자연스럽게 큰 충돌로 확산된 것으로 6·25전쟁의 발발 원인을 설명하고, '애치슨 선언'과 같은 사료를 교묘히 왜곡·편집해서 자료로 싣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식의 서술을 하고 있다가 학계와 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후에야 '남침'임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본 주제에 관한 한국사학계와 역사교과서의 문제에 대해선 이명희·강규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과교육』, 제48권 제1호(2009 봄호), 97-103쪽 참고.

31) Li, Haiwen, "Zhonggong Zhongyang Jiujing Heshi Jueding Zhiyuanjun Chuguo Zuozhan," Dangde Wenxian no. 5(1993), p. 85.; Shen, Zhi-hua, "Sino-North Korean Conflict and Its Resolution during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vol.* 14/15(Winter 2003/Spring 2004), p. 9에서 재인용.

32) Gaddis, John Lew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 97 참고.

IV. 중국의 개입, 소련의 '배신', 그리고 북한의 굴욕

자신만만하고 젊은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지도자들의 두려움이 잘못됐다는 것을 거의 증명할 뻔했다. 1950년 6월 25일 침략이 강행되자 미국은 즉시 남한을 돕기 위한 다국적군 참전의 재가를 UN으로부터 얻어냈다. 그러나 일본에 주둔하던 병력을 서둘러 파병하느라 훈련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장비도 허술했던 미군은 인민군의 진격을 늦추지 못했다. 늦여름 즈음에 인민군은 한국군과 미군을 반도의 가장 동남쪽까지 밀어붙였다. 그러나 9월 15일 미국이 바로 서울의 서쪽인 인천에서 육해군 합동의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 해서 전세는 갑자기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인민군의 진격 라인이 위험할 만큼 확대되고 노출되었다는 중국의 경고가 근거가 충분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다. UN군의 진격으로 반으로 분리된 북한군은 급속히 붕괴됐다.

UN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빠르게 진격함에 따라 북한은 임박한 패배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절박한 상황하에서 김일성은 전쟁의 가장 어려운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즉 그는 소련과 중국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동맹국들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필수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인지에 대해 확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쟁 전에 스탈린이, 북한이 원병이 필요하면 중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중국에 대한 참전 요청을 주저하고 있었다. 일단 미국이 개입하자 마오쩌둥은 중국 군대가 결국은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는 예상을 하고 북한을 도울 여러 단계의 조치를 취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소련이 북한에 군수물자를 운송하는 데 중국의 장춘철도를 사용하고 또 중국 영공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스탈린의 승인하에 7월 한국 국경에 12만 명의 군대를 배치하였다. 게다가 전쟁참전 처음 몇 주 동안 마오쩌둥은 경험 많은 중국 군사간부를 인민군에 보내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지도자는 그러한 도움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평양은 중국 대표자들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거절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이 이루어지기 5일 전 중공의 외무장관 저우언라이(周恩來)의 특사가 김일성에게 작전상 후퇴를 고려하라고 충고했을 때 김일성은 가차 없이 그의 의견을 묵살했다.[33]

북한 측이 중공의 충고와 도움을 거절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중 가장 명백한 이유는 1930년대 만주에서의 항일투쟁 기간 동안에 한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싸웠던 중국 동지들이 보여준 무시와 불신으로 점철된 역사일 것이다. 한국에 대한 수 세기에 걸친 중국의 간섭도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다. 야심만만한 김일성이 자신의 사명은 한반도에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외국의 지배로부터 조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어렵지 않게 북한의 지도자는 베이징에 원조를 요청하라는 스탈린이 제시한 전쟁 전 조건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 베이징 대신 모스크바에 도움을 요청하였다.[34]

소련의 지도자는 최초의 합의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중국에 증원군을 보내라는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다른 대안이 없자 북한의 지도자는 그 의견에 따랐다. 그러나 김일성의 청원을 받아들인 후에도 중국 지도자는 국경에 집결해 있던 군대를 바로 보내지는 않았다. UN군이 북한 영토로 신속한 진군을 계속하자 마오쩌둥 정부는 중공군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거의 2주 동안 심사숙고하고 있었다. 결국 10월 12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보낼 수 없다고 알리자, 여전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자 했던 소련의 지도자는 김일성에게 즉각 한반도에서 잔여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명령했다. 스탈린은 이즈음 미국군과 한국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소련 및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까지 감수하려 했다. "내버려둬. 미국이 우리의 이웃이 되게 놔둬." 스탈린은 지쳐서 이렇게까지 언급했다.[35]

슈티코프 대사는 스탈린에게, 북한군 철수명령이 김일성과 박헌영을 경악하게 했다고 보고했다. 김일성은 "인민군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명령이지만 명령이니 따를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김일성은 슈티코프에게 실질적 권고사항을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박헌영에게는 받아적으라고

33) Shen, Zhihua, "Sino-North Korean Conflict and its Resolution during the Korean War," pp. 9-24 참고.

34) Mansourov, Alexandre Y.,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 16-Oct. 15, 1950: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vol.* 6/7(Winter 1995/96), pp. 94-107 참고.

35) 개디스, 앞의 책(2010), 68-69쪽.; Montefiore, Simon Sebag, *Stalin: The Court of the Red Star*(New York: Knopf, 2004), p. 608.

명했다. 그리고 소련대사에게 철수를 실행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36] 다음 날, 중국의 지도자는 마음을 바꿔 스탈린에게 북한에 군대를 보낼 것이라고 알려왔다. 스탈린은 즉각 철수명령을 취소하고 김일성에게 "결국 북한에 우호적인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어 기쁘다."라고 편지를 썼다. 스탈린은 또한 "중국 동지들과 함께 중국 군대의 참전에 관한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면서 "중국 군대에 필요한 장비는 소련이 제공할 것이다."라고 통보하였다.[37]

북한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큰 안도감을 느꼈겠지만 김일성은 자신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후견인인 소련이 참전의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북한을 "미제국주의자"에게 항복시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깨달음이 그의 후견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1950년 12월 북한노동자 전체회의에서 전쟁 개시 이후 처음 행한 연설에서 김일성의 이러한 사고의 변화가 나타난다. 스탈린 동지의 종복, 세계혁명의 영광스러운 지도자, 인류의 태양, 그리고 위대한 소련, 혁명의 조국 등등 김일성이 1945년 한국으로 돌아와 행한 모든 연설을 채웠던 어구는 사라지고, 소련의 지도자 또는 소련이라는 기본적인 표현으로 대치되었다.[38]

스탈린의 철수명령이 김일성의 소련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반면, 중국군의 참전은 그에게 개인적인 굴욕과 북한에 대한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을 가져다주었다. 중국 "의용군" 사령관인 펑더화이(彭德懷)는 김일성의 군사 능력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고, 중국군이 대부분의 전투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군사행동 시 남아 있는 북한 부대와 협력하기 위해 중국군이 합동명령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몇 주 동안 그러한 제의를 무시하다가 스탈린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계획을 지지한 후에야 받아들였다. 합동명령체계로 인해 북한은 북한의 고속도로, 철도, 항만, 비행장의 통제권을 중국 장교들에게 넘겨줘야 했고, 또한 통신, 식량창고 심지어는 인력의 이동에 관한 권한조차 내주어야 했다. 게다가 1951년 1월, 북한이 강력히 반발했

---

36)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 16-Oct. 15, 1950: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p. 118. Citing ciphered telegram from Shtykov to Fyn Si (Stalin) 14 October 1950.

37) *Ibid,* p. 199. Citing ciphered telegram from Fyn Si (Stalin) to Kim Il Sung, 14 October 1950.

38) 1945-1950년 사이에 김일성이 행한 연설의 러시아 원문은 러시아 정치-사회 역사 기록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소련 중앙공산당 국제부의 파일에서 볼 수 있다.

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퇴각하는 UN군을 더 남쪽으로 추격하는 대신에 군대를 재편성하기 위해 37도선에서 진격을 멈출 것을 주장하였다. 스탈린은 다시 중국의 의견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 논쟁을 마무리지었다.[39] 이 결정으로 인해 1951년 봄의 공세는 1월 8일을 기점으로 추가 남쪽 진격을 중단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해서 비록 중국의 원군과 소련의 물자와 전문적 조언 덕택에 북한은 소멸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원조와 간섭이 남쪽에 혁명적 승리를 달성하려는 한국 공산주의자들의 최대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한 원인이라 생각하게 됐다.

Ⅴ. 휴전협상과 북한의 황폐화, 그리고 종전 후 외부의 원조

1951년 봄의 진격이 UN군을 남쪽으로 패퇴시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게 엄청난 수의 사상자를 내게 했기에, 중국 지휘부는 전쟁의 종결을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김일성은 완전한 승리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스탈린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후에야 휴전협상에 동의했다. 이것은 가을에 적의 진지를 새롭게 공격할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하여 몇 달 동안 적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그동안 중국-북한 진지를 강화해 새로운 공격 준비를 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1951년 가을에 이르러서는 양 진영 모두 각자의 진지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참호를 파두어 육상으로 더 이상 진격을 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졌다.[40]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휴전협상은 투쟁의 최전선이 되었고 북한의 목소리는 더욱 더 작아졌다. 1951년 가을, 일단 회담이 재개되자 스탈린은 미국이 회담의 성사를 더 원할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중국과

39) Shen, Zhihua, "Sino-North Korean Conflict and its Resolution during the Korean War," pp. 9-24.

40) Weathersby, Kathryn, "Stalin, Mao, and the End of the Korean War," Odd Arne Westad(ed.), *Brothers in Arms: The Rise and Fall of the Sino-Soviet Alliance* (Washington and Stanford: Woodrow Wilson Center Press/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90-116 참고.

북한이 회담에서 강경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소련의 국경이 위험에 처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지속된 분쟁이 모스크바에 유리하다고 스탈린은 확신했다. 한국전으로 미국의 병력이 묶여 있어 미국이 유럽에서 군사행동을 하기란 쉽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전으로 미국의 경제적 자원이 고갈되고 워싱턴과 주요 동맹국들 사이의 긴장이 악화되었다. 더구나, 전쟁이 계속되면 소련은 미국의 군사적 기술과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반미 감정에 불을 붙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에게는 이 단계에선 전쟁으로 소련이 얻는 이득보다 미국 공군의 계속되는 폭격으로 인해 자신들이 감내해야 하는 심각한 손상이 더 큰일이었다. 폭격으로 인한 물리적 파괴와 인명의 손실이 심각했기에 김일성은 1952년 초 휴전협정을 맺도록 동맹국들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의 휴전협정 설득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해 가을 중국 지도부는 휴전 제안에 좀더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을 계속하려는 스탈린의 의지는 확고했다. 8월과 9월 저우언라이와 회담을 할 때 늙고 병든 스탈린은, 북한인들은 "사상자밖에 잃은 것이 없다."라면서 김일성의 간청을 일축했다. 또한 스탈린은 휴전 쪽으로 기우는 중국에게, 만약 한국전에서 미국이 승리한다면 중국도 결코 대만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휴전에 응하는 것을 미국에 대한 굴복의 문제로 비화시키며 반대했다.[41]

소련과 그보다는 덜하지만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에 계속 전쟁을 강요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이 미국의 폭격으로부터 북한을 거의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할 당시 중공군은 아직 공군을 창설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소련 조종사들과 대공지상요원들로 하여금 중공군이 한국에 들어갈 때 엄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련의 지도자는 비행기와 조종사를 북한 사람으로 위장시켜 엄호해주었다. 만약 조종사가 추락하여 적에게 생포되면 소련의 군사적 존재가 노출될 것이 두려워 스탈린은 소련 공군부대의 활동영

41) Transcripts of Conversations between Stalin and Zhou Enlai held 20 August 1952, 3 September 1952, and 19 September 1952, *AVPRF*, Fond 45, Opis 1, Delo 329, Listy 54-72, 75-87, and Delo 343, Listy 97-103. Danny Rozas와 K. Weathersby가 번역한 전문은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vol. 6-7(Winter 1995/1996), pp. 5-20 참고.

역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소련 공군부대의 임무는 수풍에 있는 중요한 수력발전소의 방어, 그리고 소련의 군수물자와 중국 군대가 한국으로 들어갈 때 건너게 되는 압록강 다리의 방어와 중국 조종사들이 가능한 빨리 소련 조종사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중국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소련 조종사들은 적이 점유한 영토나 영해 상공을 비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 항공기를 추격하는 데 극도로 제한을 받았다. 약 7만 명에 이르는 조종사, 기술인력 등 전쟁 기간 동안 소련 공군은 상당한 기여를 했다. 노련한 공군이 임무를 완수한 것이 전쟁을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된 북한 상공에 폭격을 가한 미국으로부터 북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켜주지 못했다. 그 결과 북한은 상당한 물리적 파괴와 인명의 손실을 입었다. 실제로 북한의 기간산업 전체가 파괴되었고 전 인구의 8%에서 16%가 전쟁 동안 사망했다.[42]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의 갑작스런 죽음이 마침내 북한과 중국으로 하여금 휴전에 이를 수 있게 해주었다. 모스크바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집단지도체제[43]는 스탈린 이후 동유럽에서의 제국의 유지 여부, 그리고 심지어는 국내에서도 권력을 유지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다. 그 결과 그들은 즉시 한국에서의 전쟁을 종결짓기로 결정했다. 스탈린 사후 2주 만에 모스크바는 마오쩌둥과 김일성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 요지는 김일성, 펑더화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그리고 UN의 소련 대표가 휴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중요 쟁점을 기꺼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명서의 초안이었다.[44]

북한은 종전(終戰)에 관한 소련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나 모스크바의 결정은 정치적으로 북한에 해가 될 수도 있는 다른 결정을 수반하게 되었다. 1953년 4월 새로운 소련의 지도체제는 1952년 초부터 미국이 한국전에서 생물학적 무기를 사용했다고 비난하며 동맹국들이 연합하여 벌이던 대대적인 정치선동에 관한 정책방향을 느닷없이 바꿔버렸다.[45] 이 선동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

42) 피해 상황과 사상자 추정치는 Koh, B. C., "The War'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2, no. 1(1993), pp. 57-76 참고.

43) 당시 말렌코프, 몰로토프, 베리야, 그리고 흐루쇼프가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했다.

44) Weathersby, "Stalin, Mao, and the End of the Korean War," pp. 90-116 참고.

45) Resolution of the Presidium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 about letters to the

여론을 갖게 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동원하는 데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생물학적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북한 내부에서도 군대를 동원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으며 북한이 국제정치의 장에서도 적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편이 되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스탈린 이후의 지도체제는 거짓이 드러날 경우 소련의 정치적 이득에 손상을 입을 것이 두려워 중국과 북한에게 즉각 이 선동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반면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폭격은 새롭게 소련을 중심으로 블록을 형성한 국가들 사이에 연대의식을 갖게 해 고통받는 북한 동지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공통된 감정을 불러일으켜, 북한이 그들로부터 원조를 얻어낼 수 있는 이유를 제공했다. 그래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신들도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로부터 회복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와중에도 북한에 물자와 의료팀을 보내주었다. 더구나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서 바로 국경 남쪽에 미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로서, 그리고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최전선으로서의 북한의 특별한 상황은 확대되고 고착화되었다. 김일성과 그의 측근들은 이 상황을 성공적으로 이용하여 모든 형제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주장할 수 있었다. 북한의 권리 주장은 유럽동맹국들을 놀라게 했지만, 소련의 블록 국가들은 최대한 북한의 광범위한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이 놀라운 속도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었다.[46] 비록 소련과 중국이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Ambassador of the USSR in the PRC, V. V. Kuznetsov and to the Charge d'Affaires of the USSR in the DPRK, S. P. Suzdalev. 2 May 1953. 이 메시지가 중국 지도부에 전달된 것은 Telegram to V. M. Molotov from Beijing from the Ambassador of the USSR to the PRC V. V. Kuznetsov, about the Results of a Conversation with Mao Zedong on 12 May 1953 참고. 이 자료들은 Weathersby, Kathryn, "Deceiving the Deceivers: Moscow, Beijing, Pyongyang and the Allegations of Bacteriological Weapons Use in Korea,"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11 (1998), pp. 176-184에서 재인용.

46) 동독의 북한에 대한 원조에 대해선 Schaefer, Bernd, "Weathering the Sino-Soviet Conflict: The GDR and North Korea, 1949-198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14/15(Winter 2003/Spring 2004), pp. 9-24와 Frank, Rudiger, *Die DDR und Nordkorea: der Wiederaufbau der Stadt Hamburg von 1954-1962* (Aachen: Shaker, 1996) 참고.
헝가리의 북한 원조에 대해선 Fendler, Karoly, "Economic Assistance and Loans from Socialist Countries to North Korea in the Postwar Years, 1953-1963," *Asien*, no. 42, (January 1992), pp. 39-51 참고.
소련의 북한 원조에 대해선 Van Ree, Erik, "The Limits of *Juche*: North Korea's

북한을 희생시킬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지만, 결말이 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북한은 동맹국들의 원조에 의지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어떠한 잠재적인 정적까지도 제거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의 기준으로 보아도 극단적 조치를 취해서 자신의 정치권력을 보호하려 했다. 동시에 김일성은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은 사실을 왜곡해서 마치 북한이 외국원조가 아닌 "자립"이라는 정치이념의 힘을 통해 재건된 것처럼 허구를 만들어 선전하였다.

VI. 맺음말

김일성의 전쟁 의지는 자신이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세력인 소련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의 집권 과정은 물론 집권 후에도 소련은 김일성과 북한을 철저하게 장악했다. 김일성은 1949년 3월에 처음으로 남한에 대한 침공을 제안했으나 스탈린은 이를 거절했다. 스탈린은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고 미국이 개입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남침이 허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스탈린의 염려는 결과적으로 옳았다.

그러나 1949년 10월 중국공산당의 승리로 미국의 의지가 약화됐고, 중국이 필요시에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국에 심어놓은 스파이를 통해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의 소극적 태도 전환을 간파했고, 이러한 확신은 애치슨 라인의 천명으로 더 강해졌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군사도발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하에 스탈린은 전쟁을 승인했다. 스탈린이 군사적 행동을 승인했다는 통고를 들은 뒤 마오쩌둥도 이 계획에 동의했다. 러시아와 중국 측에서 얻은 결정적 증거로 볼 때 비극적 결과를 낳은 6월 25일의 대규모의 군사행동은 김일성이 창안하였고, 소련의 후원자인 스탈린과 공산 중국의 지도자인 마오쩌둥의 승인 아래 가능하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임박한 패배에 직면하게 되자 김일성은 처절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즉 그는 소련과 중국의 결정에 따라야

Dependence on Soviet Industrial Aid, 1953-76," *The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vol. 5, no. 1.(1989), pp. 57-58 참고.

하고 동맹국들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필수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인지에 대해 확신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전쟁 개시 결정에 관해 북한이 소련과 중국에 보인 자발적인 종속의 감정은 1950년 10월 분노로 변했다.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한반도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중공군의 개입은 북한의 패배를 막아줬지만 북한과 전쟁 결과에 대한 김일성의 모욕감과 무기력을 가져왔다.

이러한 전시의 경험은 북한 역사의 초기단계에서 가졌던 소련 주도적인 세계 공산주의운동의 일환인 혁명을 통해서 국가를 구제할 수 있다는 핵심적 믿음에 대해 회의를 갖게 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대신 동맹국들을 경제적, 군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이용할 수는 있어도 "한국의 구원"은 오직 한국인들에게만 맡길 수 있다는 가설에 도달하게 되었다. 소련과 중국이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북한을 희생시킬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충격을 받은 김일성은 향후 외부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갖게 됐다. 김일성은 어떠한 잠재적인 정적까지도 제거하기 위하여 극단적 조치를 취하면서 자신의 정치권력을 보호하려 했다. 전후 북한은 재건을 위해 동맹국들의 원조에 의지하게 되었지만, 대내적으로는 마치 북한이 외국 원조가 아닌 '자립'을 통해 재건된 것처럼 선전하면서 체제를 운영해나갔다.

참 고 문 헌

개디스, 존 루이스 저, 강규형·정철 옮김,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서울: 에코리브르, 2010.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이명희·강규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회과교육』 48권 1호, 2009, 93-109쪽.

Bajanov, Evgenii P. and Natalia Bajanov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unpublished manuscript based on records from the Presidential Archive of Russia.

Fendler, Karoly, "Economic Assistance and Loans from Socialist Countries to North Korea in the Postwar Years, 1953-1963," *Asien.* no. 42, 1992, pp. 39-51.

Frank, Rudiger, *Die DDR und Nordkorea: der Wiederaufbau der Stadt Hamburg von 1954-1962.* Aachen: Shaker, 1996.

Gaddis, John Lew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Gaddis, John Lewis,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Goncharov, Sergei N.,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Khrushchev, Nikita, *Khrushchev Remembers: The Glasnost Tapes.*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90.

Kim, Gye-Dong, "Who Invented the Korean War?" James Cotton and Ian Neary (eds.), *The Korean War in History.* Manchester, U. K.: University of Manchester Press, 1989, pp. 33-50.

Koh, B. C., "The War'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2, no. 1, 1993, pp. 57-76.

Lankov, Andrei, *From Stalin to Kim Il Su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1950.*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MacDonald, Callum A.,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London: Macmillan, 1986.

Mansourov, Alexandre Y.,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 16-Oct. 15, 1950: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6/7, 1995/96, pp. 94-107.

Montefiore, Simon Sebag, *Stalin: The Court of the Red Star.* New York: Knopf, 2004.

Schaefer, Bernd, "Weathering the Sino-Soviet Conflict: The GDR and North Korea, 1949-198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14/15, 2003/2004, pp. 9-24.

Shen, Zhihua, "Sino-North Korean Conflict and its Resolution during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14/15, 2003/2004, pp. 9-24.

Van Ree, Erik, "The Limits of *Juche*: North Korea's Dependence on Soviet Industrial Aid, 1953-76," *The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vol. 5, no. 1. 1989, pp. 50-73.

Weathersby, Kathryn, "The Soviet Role in the Korean War: The State of Historical Knowledge," William Stueck(ed.), *The Korean War in World History.*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4, pp. 61-92.

Weathersby, Kathryn,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Working Paper no. 3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ashington, D.C., July 2002, pp. 1-27.

Weathersby, Kathryn, "Stalin, Mao, and the End of the Korean War," Odd Arne Westad(ed.), *Brothers in Arms: The Rise and Fall of the Sino-Soviet Alliance.* Washington and Stanford: Woodrow Wilson Center Press/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90-116.

Weathersby, Kathryn, "Deceiving the Deceivers: Moscow, Beijing, Pyongyang and the Allegations of Bacteriological Weapons Use in Korea,"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11, 1998, pp. 176-184.

Weathersby, Kathryn,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5, Spring 1995, pp. 1-9.

Weathersby, Kathryn, "Making Foreign Policy under Stalin: The Case of Korea," Niels Erik Rosenfeldt, Bent Jensen, and Erik Kulavig(eds.), *Mechanisms of Power in the Soviet Union.* London and New York: Macmillan Press/St. Martin's Press, 1993, pp. 224-240.

Westad, Odd Arne(ed.), *Brothers in Arms: The Rise and Fall of the Sino-Soviet Alliance.* Washington and Stanford: Woodrow Wilson Center Press an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국 문 요 약

러시아와 중국의 기밀해제문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북한-중국-소련 관계가 6·25전쟁의 과정에 미친 영향과 전후 북한체제의 대외적인 행태에 미친 영향을 논하였다. 전쟁 개시 결정에 관해 북한이 소련과 중국에 보인 자발적인 종속의 감정은 1950년 10월 분노로 변했다.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한반도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중공군의 개입은 북한의 패배를 막아줬지만 북한과 전쟁 결과에 대한 김일성의 모욕감과 무기력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험은 외부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은 계속 필요하지만 한반도의 운명은 결국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됐다.

투고일 2010. 6. 8.
수정일 2010. 8. 5.
게재 확정일 2010. 8. 7.
주제어(keyword) 6·25전쟁(the Korean War), 소련(Soviet Union), 중국(중공, China), 북한(North Korea), 김일성(Kim Il Sung), 스탈린(Stalin), 마오쩌둥(Mao Zedong), 기밀해제문서(declassified documents)